

# 한국전통 보자속에 은유된 현대 포장디자인 요소

## Modern Package Design Factors Hidden in Traditional Korean Wrapping Cloth

권일현\*, 남용현\*\*

한국폴리텍I 서울정수대학 디자인 계열\*,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Il-Hyun Kwon(ihkwon@kopo.ac.kr)\*, Young-Hyun Nam(yhnam@kangwon.ac.kr)\*\*

### 요약

문헌과 풍속도를 통해 보자기의 용도와 쓰임새를 알아보고, 민보와 상용보를 중심으로 그 가치와 기능을 분석 하였다.

산업사회 가방문화의 단일성과는 달리 보자기는 다양성과역동성, 가변적수용성, 2차원과 3차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보자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짜투리 천조각의 재활용성은 세계 어느 전통 운반기구의 문화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환경적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이런 다의적 요소들은 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으로 컨버전스 되어 새로운 관점의 포장디자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현대 포장디자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다양한 기능의 현대 포장디자인 방향을 제시한다.

■ 중심어 : | 다양성 | 가변성 | 재활용성 | 2D,3D의 공존 | 복합 |

### Abstract

In this study, the use of wrapping cloth was studied by examining documents and drawings from the past that reflect the life of people of the time with a focus on "minbo" (a wrapping cloth used by civilians) and "gungbo" (a wrapping cloth used by the ruling class).

Unlike the bag culture of industrialized society, wrapping cloth has diversity, dynamic and receptiveness to changes as well as coexistence of 2 and 3-dimension. Environment-friendliness of recyclability of the cloth used for making wrapping cloth is not found in any other traditional transportation device cultures of the world. Such polysemous elements converge into a various fun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raw material and allow a package design from a new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above factors from a package design perspective to suggest an innovative modern package design that has fusional, diverse features.

■ Key words : | Diversity | Changeability | Recyclability | 2&3-Dimensional Coexistence | Fusion |

## 1. 서론

자연과 인간, 다른 문화와 사회, 너와 나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관계의 벽들이 21세기에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수없이 많은 경계의 벽이 무너지면서 들리지 않던 소리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드러나고, 작은 것들이 하나 하나 모여 커다란 형상을 이루는 컨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살기위해 상호작용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인위적 사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것 처럼 환경과 사물들이 결코 그렇게 딱딱하고 분명하며, 명확하게 하나의 기능을 지니게 되지 않는다[1].

가방의 기능과 같이 그 형태에 명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산업사회의 사고방식들은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융합하고 다기능 다시점의 중심 없는 분산성을 지닌 디자인들, 한마디로 단일기호 체계에서 다기호 체계로, 외시의 미에서 공시의미체계로, 굳은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고립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문명의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가변적 상황을 엘빈토플러는 애드호크래시(Adhocracy) 라고 부른다.

산업사회 자체를 탈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디자인하는 의식의 패러다임을 창조해 내는 역할과 인간의 총체적 삶을 디자인 하여 자연 환경과 문명 환경 속에서 다 같이 쾌적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지혜를 찾기위해 문헌에 언급된 보자기의 용도 및 기능에 대해서는 건너서, 사소질,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풍속도에는 문헌사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상을 생생하게 증명할 수 있는 조선시대 민간 풍속화에서 보자기의 용도와 사용적 가치를 재발견하였다.

이는 용기적 물성에서 뿐만 아니라 문명의 의미작용인 하나의 기호체계로 분석하여 보자기에 내재된 입시 변통주의에 상응하는 가변적 다양성을 21세기 현대 포장디자인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 II. 현대 포장디자인의 원리와 현황

대중 소비사회가 출현하기 전 물자가 부족하여 만들면 팔리던 시절에는 소비자의 의향이 완전 무시되었고, 정보의 불충분으로 상품과 사회에 대한 지식이 단절되었던 시기이다. 그후 산업사회에서 생산성이 향상되어 수요를 앞지르게 되었고, 어떤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Marketing이 요구되던 시대는 단순히 생산과 운반, 내용물 보호라는 개념을 떠나 표면디자인과 함께 판매를 위한 Communication의 수단으로 사용적 편리성과 심미성, 효용성, 재활용성 중심의 디자인이 성립되던 시대였지만 기계적 매카니즘에 의한 대량 생산적 패키지 조형과 단일적 기능이 지배적이 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디자인 문화의 개인적 Schema를 살펴보면 어떤 상품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혁신적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 등, 대부분 소비자의 정체성과 다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는 상품과 이미지를 자신과 관계없는, 즉 삶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성적 감성적 판단이 아닌 무의식 영역에서의 'Good Will' 형성을 위한 접근으로 단순하게 기능성과 심미성을 중시하거나 브랜드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정신적 만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교감하여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연장선상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기술과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면 인쇄의 제약에서 벗어나 Hessian, Felt, Fabric 등 다양한 포장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바코드보다도 몇 천배의 정보 능력을 가진 RFID 칩이 내장(인쇄)된다. 이는 물류시스템의 대혁명과 아울러 포장 디자인의 형태나 구조의 기능에 있어서도,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산업 사회의 패키지에서 불가능 했던 기능과 기술적 융합이 유비쿼트스 시대적 상황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개념들이 복합과 융합이 가능해 짐으로서, 예전의 단순 기능에서 더욱 더 새롭고 다양한 기능의 가치를 가진 포장 디자인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시장이 놀라운 속도로 형성되고 확대 재생산 된다.

## III. 보자기의 용도와 기능성 분석

### 1. 문헌과 풍속도 고찰

보자기는 물건을 싸서 보관해 두거나 이를 운반하는 데 가장 편리한 생활도구 이면서 예절과 격식을 갖추는 의례용으로 계층간 구별 없이 범용적으로 사용 되어왔음을 문헌이나 풍속화에서 추정해본다. 각종 보자기들이 주로 어떤 용도로,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먼저 문헌에 나타나 있는 것 부터 고찰해 보겠다.

문헌에 언급된 보자기의 용도 및 기능에 대해서는 건너서, 사소절, 규합총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건너서의 부모를 섬기는 도리에서는 “강보에 싸인 때부터 성장하도록 근로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늘이 끝이 없듯이 어찌 잊을 때가 있으리오.” 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강보(襁褓)라 함은 아기를 싸는 포대기에 대한 언급이다. 보자기가 처음에 옷의 의미로 함축되어 있음을 현존하는 최고의 보자기로 알려진 선암사의 탁자보(고려중기추정)가 탁의(卓衣)라고 불린다는 사실이다[19].

사소절 부의(婦儀)에서는 복식(服食)에서 보자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불과 베개와 요강은 보를 가지고 잘 덮어서 번거롭게 남자들이 보이지 않도록하고, 수건과 빗집은 역시 조용한 곳에 간직하고[14]..

무릇 손으로 음식을 만들때는 머리와 가려운데를 굽지 말고, 손톱을 깎고, 반드시 수건으로 그릇마다 잘 덮으며... 인용부분을 살펴보면 이불과 베개 및 요강등을 보로 잘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집안가재도구의 정리정돈과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수단으로써 사용됨을 알게 된다.

또, 음식을 만들때 그릇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자기 등으로 잘 덮는다. 이는 당시 부녀자들이 청결유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때 보자기를 덮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음식을 만들때 청결 유지를 중시한점은 ‘사소절’ 부의(婦儀), 사물(事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근면한 부인은 쥐오줌이나 파리똥과 같은 것이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게 방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15].

이부분을 통해서 부녀자들은 음식물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밥상이나 음식물이 들어있는 그릇 위에 보자기를 덮어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상보가 그 한예라 할 수 있다.

또 사소절에서는 혼인한 사돈집과의 예에 대해서, “혼인한 집과는 자연 형제의 의리가 있으니, 안부를 묻고 예물을 보내며 오래 화목하고 공경하여 후한 뜻을 잃지 말것이다[16].” 이 대목은 조선시대 예를 알 수 있고 안부차 예물을 보낼때는 보자기 등으로 정성스럽게 물건을 싸는 것으로 보인다.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에서도 보자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규합총서 권지1 주식의(酒食議) 약주제품(藥酒諸品)에는 17가지 종류의 약주 제작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五種酒(오종주)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을 보면 후추, 계피는 가루로 만들어 배 조각으로 주머니를 지어 넣고...”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조선시대 여인들은 배 조각 천을 활용해 주방용품을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다. “소주 고을 제, 받는 그릇에 불이 가까우면 인화하기 때문에 초항에 당기어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으니, 푸른 보로 덮치면 즉시 꺼진다.”라는 대목은 소주를 내리다 불이 났을때 보자기로 덮어서 불을 끄도록 했다.

규합총서 권지1 주식의(酒食議) 병과제품(餅菓諸品)에는 28가지 종류의 떡, 3가지 종류의 면, 27가지 과출 만드는 법에 관한 설명이 있다. 먼저 떡 제작법 중 복령조화고(茯苓造化糕)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백복령, 연육, 산약, 검인 각 넉 냥, 사탕 한 근을 다 곱게 가루 하되 회계 쓴 멥쌀가루 두 되에 섞어 시루에 안치고...(배)보자기나 보 같은 것을 덮어 쪄 먹고...” 이를 통해 떡을 쪄 때 보자기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떡 보자기용 조각보는 비교적 큰 조각을 이어 만드는데, 떡 보자기의 경우 천조각의 이음새가 많으면 떡이 달라 붙기 때문이라고 한다[2].

규합총서 2권지 2 봉임측 도침법(壽砒法)에는 각종 식물과 식물색에 따른 다듬이질 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자주빛 천 다듬이질 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주빛 것 다듬기는 풀을 뜯물만치 개어 체에 밭어 고루고루 쳐, 짜 내어 무수히 부쳐 물기가 꺼득꺼득하거든 가를 잡아당겨 형겔과 보에 싸서 놓고, 낡은 목 있

는 신이나 여느 신이나 신고, 힘껏 굴러 밟아 자주 퍼 보아가며 다시 개어 꽤 발방 반쯤 마르거든 흥두께 올려 밀어가면 밟아 다듬으면 살이 올라 반반해진다.”

이내용을 살펴보면 자주빛 직물의 경우에는 형겅이나 보자기에 옷감을 싸서 발로 다듬는 밟다듬이질을 했고, 이때 보자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듬이질은 푸새, 즉 세탁이 끝난 옷에 풀을 먹인 후 행해지는 과정이다. 조선 후기의 여성들은 푸새를 한 세탁물이 완전히 마른 후 물에 축여 빨래보에 싸서 두고, 세탁물에 물기가 퍼진 후 이를 솔기에 맞추어 개서 다시 빨래보에 싸서 밟거나 다듬잇 방망이로 두드렸다[4]. 이렇게 빨래보는 다듬이질을 행할 때 두루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규합총서는 실학정신을 바탕으로 한 저서로, 이 책에 설명된 가사 일에 대한 부분은 빙허각 이씨의 실행에 의해 고증된 결과가 많다. 남편 서유본(徐有本)의 시 중에는 “아내가 해마다 누에 치고 길쌈하며 온갖 꽃을 따다가 술을 빚어서 나에게 준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빙허각 이씨가 직접 가사 일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3].

이상의 문헌에서와 같이 보자기는 보, 보자, 형겅등의 명칭으로 기재되었고, 보자기 사용에 관해 언급된 부분을 통해 당시 의식주와 생활 곳곳에서 보자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풍속도에는 문헌사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상을 생생하게 증명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민간 풍속화에서 보자기를 살펴보는 것은 보자기의 용도와 사용 적 가치를 재발견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된다.

민간풍속화에 나타나는 보자기는 상용보와 비상용보로 나누어진다. 상용보에는 부녀자들이 부엌용구로 사용한 보자기(광주리, 함지박 등을 덮는 보자기)와 침선(針線)용구로 사용하는 보자기, 기타 일상적으로 사용한 보부상보 등이 있다. 그 밖에 책보 및 일반 붓짐용 보자기이다.

부녀자들이 주로 사용한 부엌용 보자기들은 평생도의 잔치풍경, 행려풍속도병의 야연(野緣), 저갓길, 단오풍경, 농촌풍경, 등에서 광주리, 함지박, 상목판 위를 덮

는 형태로 나타났다[18].

[그림 1] 단오풍정 은 단오를 맞아 개울가에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보자기는 목욕용품과 옷가지 등을 운반 하는 도구로 사용됨을 추정할 수 있고,

필자 미상의 19세기 풍속도 중 [그림 2]가두매점(街頭) '에서는 한 여인이 흑색 상보를 덮은 한 여인이 흑



그림 1. 단오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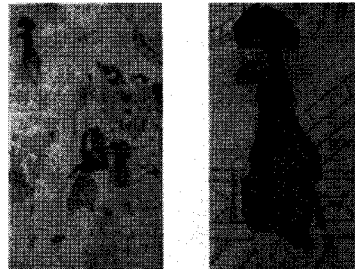


그림 2. 가두매점

색 상보를 덮은 소반을 머리에 이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동시 소반위에 덮은 것으로 보아, 이 상보는 바람에 날지 않기 위해 끈이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 풍속화가 김준근의 ‘단오추천’(端午鞦韆) [그림 3]에서는 단오 날에 명절 음식으로 쭈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미루어 떡이 담겨 있는 함지박을 덮는 떡보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되어진다.

침선용구로 사용된 보자기는 부녀자들이 바느질 하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에서 볼수 있다. 김준근의 풍속화 중 ‘부녀침저하고’ [그림 4]에는 보자기가 위를 묶은 붓짐 형태로 그려져 있다.



그림 3. 단오추천



그림 4. 부녀침처 하고

그림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바느질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며, 그 앞에 바느질 용구를 담은 반질고리가 있다. 이 반질고리 안에 보짐이 보이는데, 바느질 용구를 싸둔 것으로 보인다. 여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한 보자기인 머리 수건은 여인들의 노동 및 외출 시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에 보인다. 머리 수건은 개성에서 ‘머릿보’라 불렸다.

조선후기에는 서울 여인들이 쪽머리를 할 때, 지방 여인은 엷은머리에 수건을 썼다. 여자가 엷은머리만으로 외출 하는 것은 남자의 탈모(脫帽)와 같다고 하여, 기혼자는 반드시 머리 수건을 착용하는 풍속이 있었는데, 지방에 따라 그 형태와 쓰는 방법이 달랐다.

남녀 구별 없이 사용된 보부상보, 후리보, 책보 등 여러 보짐의 형태는 풍속화의 주제와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폭넓게 찾아 볼 수 있다.

보부상보는 행상을 그린 풍속화에서 등장한다. 보부상들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한 보자기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싸야할 물건이 많아지면 천을 이어 늘리고, 헤어지면 덧대서 사용하였다[2]. 그 외에

김준근의 ‘부부행상’에서도 보부상의 보짐을 발견 할 수 있다. 후리보는 여행할 때 어깨나 허리에 걸치는 보자기로 행려풍속도, 시장, 승려 그림에서 발견 된다.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병’(1778)중 ‘타도락취’(打稻樂趣) [그림 5]의 그림 하단에 위치한 나그네는 우측 어깨에 후리보를 매고 있다.

이 후리보 에는 마름모꼴 조각 천으로 구성 되어 있는 부분 [그림 6]이 있다. 조각 천으로 이은 형태는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중 점괘 [그림 7]에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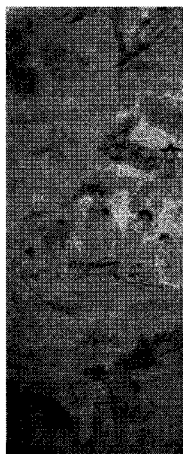


그림 5. 타도락취



그림 6. 타도락취부분



그림 7. 점괘

목탁은 두드리고 있는 승려의 좌측 하단에는 후리보로 보이는 것이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도 조각 천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또한 신윤복의 ‘혜원전 신첩’을 보면 외출하는 여주인과 함께 있는 노비들이 보자기를 팔에 끼고 있는 모습 [그림 8]이 많이 등장 한다. 외출용 가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8. 이승영기

비상용보로는 주로 혼례용 보자기가 많았다. 혼수는 대개 청, 홍색 비단 치마, 저고리 감으로 청색비단은 붉은 종이에 싸고 홍색 비단은 청색 종이에 싸서 넣는다. 이와 같은 색 비단은 집안 형편에 따라 보냈는데, 적게는 두 감, 많게는 열 감 정도였다. 비단 외에도 폐물과 음식물 등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보낸다[2]. 이 때 필요한 보자기는 혼서와 함보 및 혼례용 상보이다. 혼서보는 혼서를 쌀 때 사용되었는데, 흑색 천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세폭 정도이다. 함보는 [그림 9] 함을 쌀 때 사용 되었다. 함보는 내보와 외보의 두개이며, 일반적으로 내보는 네 폭 정도, 외보는 다섯 폭 정도 였는데, 함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5]. 혼례용 상보 [그림 10]는 신부 집에서 신랑측으로부터 온 함을 받을 때 소반위에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봉치떡 시루를 올려놓고, 함을 받을 때 필요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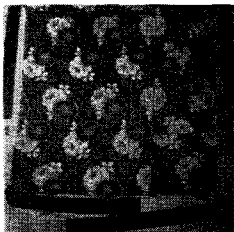


그림 9. 함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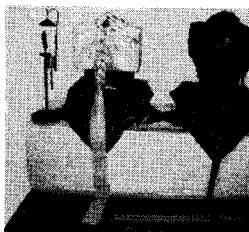


그림 10. 혼례용상보

이외에도 기러기보와 면사보(面紗保), 폐백보가 있다. 나무기러기를 쌀 때 사용하는 것은 기러기보는 보통 청홍색 경보이다. 보자기로 쌀 때는 기러기를 상징 할 수 있도록 나무기러기의 목을 밖에 내놓고 꼬리 또한 보이도록 했다. 한편 면사포는 원래 여성들 궁중의 법복에 속하는 예장용 이였으나 후대에 와서 민가에서 혼례 시 사용하였다[7].

폐백보는 혼례식을 마친 후 신부가 시댁에 들어가서 웃어른에게 인사 드릴 때 차려 놓은 음식물을 싸기는 보자기이다. 시아버지의 대추 폐백용 보자기 한 개와 시어머니의 고기폐백용 보자기 한개, 이 두 가지를 큰 목판에 담아 운반할 때 쓰는 보자기 한 개, 총 세 개가 필요했다[8].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풍속화에서 발견된 비상보

중 혼례용보의 종류를 살펴보면, 기러기보, 폐백보, 함보가 있다. 기러기보는 초행그림에서 발견 되는데 주로 기러기아비가 붉은 기러기보를 쓴 기러기를 안고 가는 모습이 등장한다. 김홍도의 '단원 풍속화첩'중 '신행'[그림 11]를 보면 청사조롱이 앞서고 그 뒤에 기러기아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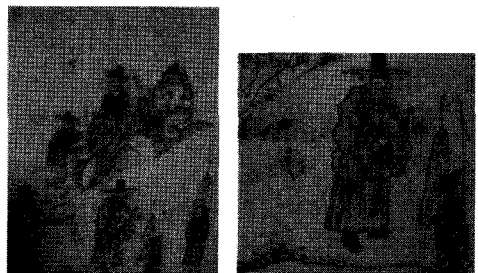


그림 11. 기러기보

리기로 쓴 기러기를 두손에 들고 가는 모습이 묘사 되어 있다.

폐백보는 김준근의 그림 중 '시집가는 모양'을 보면 붉은 보자기로 쓴 폐백물을 머리에 인 여중 2명이 앞장 서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함보는 김준근의 '예물 보내고'를 보면 함진아비 두 명이 각각 청색과 소색의 보자기로 쓴 함을 지고 가는 모습이 묘사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보자기가 생활의 도구로사 사용됨을 [그림 12]과 같이 알 수 있다

풍속도에 나타난 보자기 분류	용도별 분류	
	포장용	벗짐용
풍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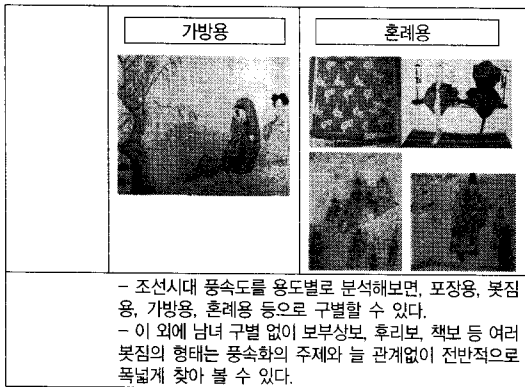


그림 12. 풍속도에 나타난 보자기 용도별 분류

## 2. 보자기의 기능과 사회문화적 역할

유교의 삼강오륜을 도덕기준으로 삼던 당시의 근엄하고 금융적인 생활은 보자기에 있어서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연주의 사상으로 인위적이고 기술적이며 정밀한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조화에 더 비중을 두어 소박하고 꾸밈이 없이 표현을 하였다. 그래서 자연주의 사상이야말로 한국미의 특징이며 우리 한민족의 기본 사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자기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주거 공간이 협소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물건이 가재 도구로써 바람직했다. 보자기는 개폐에 따라 용적의 신축이 자유로워 보관 혹은 운반 용구로 사용 할 때는 용적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평면적으로 접어 둘 수 있었으므로 그런 가재도구로서 적격이 었다. 이런 다양성과 실리성 때문에 보자기가 널리 쓰기에 되었다.

둘째는 의례적인 측면으로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동양적인 예의를 다양한 마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보자기는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 물건을 싸거나 덮어 보호하는 한편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사용되어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물건에 대한 각듯한 예의를 표하는 마음의 전달 매개체로서의 역할이다[9].

셋째는 민간 신앙적 측면이다. 보자기의 발달 이면에는 기복 신앙적요소가 내재 되어 있다. 즉 대상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은 일종의 치성을 드리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치성을 드린 대상은 복을 부르는 매체가 된다고 믿는 것이 민간의 속 신이었다. 수를 놓거나 조각친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등 보자기를 공들며 만드는 것은 복을 비는 마음의 정성에 대한 표현 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싸두는 물건을 복에 비유하여 싸두는 것은 복을 싸둔다는 뜻과 통했으며 복을 싸두면 복을 받게 된다는 설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조선시대 폐쇄적인 사회에서의 여성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 활용으로서 자투리 천을 조형적으로 구성한 노동과 예술이 하나로 합쳐진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각보를 만드는 일은 폐쇄된 사회에서 한정된 활동만이 허용되었던 여성들의 깊은 규방 속에서 남모르게 가꾸고 소중히 간직해온 창조의 기쁨과 여가 활동을 위한 소일꺼리였으며, 그들만이 가꿀 수 있었던 내재된 감정의 표현 이었다. 이것은 여인들의 한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되어 오던 중 예술의 경지에 까지 이르러 널리 보급 되었다고 볼 수 있다[17]. 이와 같이 보자기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갖춘 비전문가의 손에 의해 계승, 발전된 전통생활 용품으로 그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가 있다.

이와 같이 보자기는 기능성과 장식성을 갖춘 비전문가의 손에 의해 계승, 발전된 전통생활 용품으로 그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가 있다. 일본이나 중국의 보자기와 다른 점은 물건을 싸서 댈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의 끈이 달린 것, 두개, 세개, 네개 달린 것이 있었으며 끈의 수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달랐다. 한 개의 끈이 달린 것은 대개 노리개와 같이 작은 장식물을 싸둘 때, 두개의 끈이 달린 것은 패물류, 세 개 인 것은 예단이나 옷감을 싸두었다. 끈이 네 개 달린 보자기는 함이나 큰 밥상처럼 큰 물건을 덮어 쌀 때 주로 쓰였고 끈이 없는 것은 예물을 보낼 때 그 밑에 깔거나 덮는 기능을 하였다. 보자기 용도의 또 하나는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끈이 달려 있지 않지만 보자기 중앙에 리본이 붙어있는 “반상보”는 상위에 음식을 덮는 것이다[11]. 중앙에 달린 리본을 잡으면 싹 들어 올릴 수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 이면서 한국인들에게는 복을 부른다고 하여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이런 우리 전통 보자기는 없어서는 안될 일상의 소품

이면서 한쪽의 그림과도 같다. 보자기는 작은 생활용품에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복을 기원하는 마음 등 만든 사람의 따뜻한 정감과 마음 씀씀이가 배어 있다. 보자기의 역사적 특성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통사회에서 보자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물건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폐에 따라 용적의 신축이 자유롭고, 각듯한 예의를 표현하는 마음의 전달매체로써, 또 기복 신앙적 요소로써, 폐쇄된 사회에서의 여성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활용성 등이 보자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었다.

#### IV. 가방의 용도와 기능성 분석

가방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 의상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류가 다양하다. 크게 분류하면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크게 분류되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용도에 따라 [그림 13]와 같이 나누어진다.

가방의 분류	용도의 분류	
가방 문화	<b>핸드백</b> 	<b>서류가방</b> 
	<b>여행용 가방</b> 	<b>기 타</b> 
	- 기타 . 학생용 가방 . 등산용 가방 . 운동용 가방 . 카메라 가방 . 노트북 가방 등	

그림 13. 가방의 용도별 분류 Map

핸드백은 지갑이나 화장품 등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넣어 다니는 가방으로 의복형태와 관련을 가진다. 요즘은 옷의 형태가 심플해서 가방이 액세서리로서의 구실이 중요시되어 그 선택에 있어 옷과 코디네이트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서류가방의 경우에는 남성 가방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사무용, 통근용, 비즈니스백으로 사용된다. 직장 남성들의 간편한 차림에 간단한 소지품(서류, 지갑, 필기도구, 수첩, 손수건)등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무용, 통근용이다. 여행용 가방은 상자형으로 주로 의복류를 많이 넣으며,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벼운 합성섬유나 가죽으로 되어있다[10].

가방은 용도와 기능에 맞게 규격화되어 있고, 이는 그 사용적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성과 단일성을 갖고 있다. 산업사회의 산물인 가방은 기능합리주의와 로고스 중심의 가치로서 가변성과 임시 변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모순적 한계성도 이런 가방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방의 기능과 돈키호테를 연결시켜 보면 흥미 있는 결과를 엿볼 수 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의 갑옷을 입는다. 갑옷이란 상자 속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무거운 갑옷 속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운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갑옷을 벗을 수 없다.

갑옷이란 형식 속에 있어야 기사가 되기 때문이다. 형식이 그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산업사회 가방 문화의 특징이다. 가방문화는 인간보다 이념이나 제도 우선의 사회가 되고 이런 사회일수록 인간이 소외 될 수밖에 없다.

#### V. 보자기와 가방의 용도 및 기능성 비교분석

가방이나 보자기는 처음부터 물건을 운반, 보관, 소유의 목적으로 태어나, 자본주 발달의 도구적 태생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는 물건의 소유형태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자, 장롱, 창고 등은 자본주의 산물이다. 소유가 많을수록 커진다. 자본주의의 발달은 움직이는 상자를 만들려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단순한 소유의 축적이 아니라 그것을 수시로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밖으로



끌어내려는 교환이나 운반에서 그 욕망은 현실화 된다. 서양인들의 욕망은 가방으로 만들어 냈고 한국인(동양인)들을 보자기를 만들어 냈다. 가방은 산업사회의 생산시스템과 개발우선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가방은 물건을 담을때 보자기 보다는 훨씬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는 편리성 때문에 [그림 14]와 같이 산업사회에서 대표적인 교환, 운반, 욕망의 수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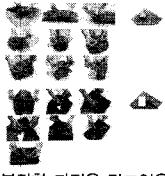
문화적 기능 비교	편리성과 복잡성	
산업성	편리성	 (열고, 넣고, 닫고, 간편함)
	시간소요	 (복잡한 과정을 갖고있음)
	복잡성	
	- 보자기는 사용시 불편성과 복잡한 과정을 갖고있음. 이는 산업사회의 매카니즘과 거리가 멀다. - 가방은 사용시 시간절약과 편리성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인정을 받음.(열고, 넣고, 닫고) - 모더니즘의 카테고리속에서 산업사회의 획일화된 생산 방식 시스템과 동질성을 갖고 있음.	

그림 14. 가방의 편리성 Map

가방은 획일화되고 균일화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더니즘적 카테고리 안에 속하며, 산업사회의 생산 방식 시스템과도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많이 사용되었지만, 후기산업사회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모든 것이 다양화되고 개성화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가방보다 큰 물건은 수용할 수 없고, 작은 물건은 그 공간적 공실률이 크며, 비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가방과 보자기에는 기술의 근대성이라는 단순한 자로 쥘 수 없는 특성이 숨겨져 있다[13].

양자는 인간과 도구와의 관계에서 분리와 일체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가방은 남은 물건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다. 그러나 보자기는 싸는 물건의 부피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그림 15]과 같이 빠져나오기도 하는 다재다능한 융통성을 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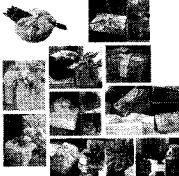

문화적 기능 비교	획일성과 융통성	
신속성	개성화	 (자기 시스템에 맞는 것만 수용함)
	표준화	 (자기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은 수용못함)
	융통성	
	- 보자기는 싸는 물건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다재다능한 융통성을 부린다. 자기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 까지 수용하는 신속성을 갖고 있다. (포스터 모더니즘) - 가방은 자기 시스템에 맞는 것만 수용하고 맞지 않는 것은 수용하지 못함(모더니즘)	

그림 15. 보자기의 융통성 Map

또 쌀 것이 없으면 3차원의 형태와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간다. 가방과는 달리 그것을 싸는 내용물과 보자기가 일체가 된다. 이는 후기산업 사회에 걸 맞는 또 다른 한국적 기술원형을 찾을 수 있다[12]. 뿐만 아니라, 가방과 보자기의 차이는 단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기능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가방의 촉매작용은 ‘넣다’와 ‘빼다’뿐이지만 보자기에는 ‘싸다’ ‘메다’ ‘가리다’ ‘덮다’ ‘깔

다' '들다' '이다' '차다'와 같이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무수한 동사들이 [그림 16]와 같이 따라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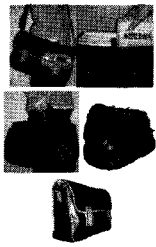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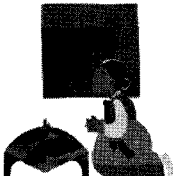
문화적 기능 비교	촉매작용	
다의성	2차원	3차원
	가방의 동사  (용도가 있을때나 없을때나 3차원 공간으로 남아 있음)	
	 (용도가 없을때는 평면으로 돌아감)	보자기의 동사
<p>- 보자기는 쓸것이 없으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환원됨 (탈 근대적 발상) 보자기의 동사 : 싸다, 매다, 가리다, 덮다, 들다, 이다, 차다, 깔다 등으로 개별적 다양성. - 가방은 용도가 없을 때도 3차원 공간으로 그냥 남는다. 가방의 동사 : 매다, 들다, 널다 정도의 단일성.</p>		

그림 16. 보자기와 가방의 촉매작용 분석 Map

자원의 재활용에 있어서도 잦아만 한 크기의 조각 천에서 부터 손바닥 만한 크기까지 그 크기에 따라 각각의 쓰임새로 재활용되었다. 자투리 천을 재활용하여 미학적 가치가 높은 보자기를 창조한 점은 비록 비전문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뤄졌다 해도 그 결과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보자기는 우리가 자원 부족 국가로 예견 했던 것일까. 지금 지구 자원은 석유, 물 등으로 부터의 고갈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의 근절점약 정신과 이용방법을 보자기는 지니고 있고, 현대의 그런 디자인(Green Design)을 몇 백년 앞

서 우리 선조들은 실천 했던 것이다.

이런 융통성과 가변적 다기능성, 자원의 재활용성, 등은 서구사회의 가방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 VI. 보자속에 은유된 현대 포장디자인의 가치

현대 포장 디자인은 내용물 보호 및 운반에 따르는 원초적 실질 기능이나 판매를 위한 Communication의 수단적 가치를 넘어 상품과 정신적 만족을 통해 소비자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교감한다.

효용성과 심미성 보다는 의미와 상징성, 사회문화적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직관적 느낌적 판단에 그 가치를 둔다. 패키지 디자인 자체 만으로도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감성적, 감각적 패키지 디자인 상품의 가치는 다양하고 까다로운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는데, 그 어는 상품의 가치요소보다 설득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패키지 디자인이 상품의 구성인자 보다도 경쟁력과 부가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패키지 디자인의 역할이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 패키지 디자인은 다양한 형태와 복합 기능으로 구성되어 진다. 그 이유로는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예술로서 또는 상품 그 자체로도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다의성을 가진 패키지 개발이 가능해진 것은 포장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가능해지고 있다.

RFID칩의 적용과 포장 재질의 신기술은 포장의 형태를 자유롭게 한다. 기존의 제품들을 정보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담기 위한 표면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RFID가 적용된다면 기존 바코드와 같이 정보가 보여져야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현재의 포장 기능보다는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소비자의 다양한 가치선호에 힘입어 날개의 제품 포장은 다양한 포장 구조를 갖게 되고, Out box의 형태는 유통상 공실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변한다.

포장과 재질에 있어서도, 인쇄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여 왔던 현재와 다르게 제품 자체에 RFID 칩을 삽입(인쇄)하면 모든 정보의 전달준비는 끝나므로, 인쇄가 불가능한 재질의 사용도 고려된다.

포장에 있어서 광범위한 새로운 재질의 사용이란 포장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에게 물질과 공간적 재활용성, 새로운 용도의 개척, Visual impact, 촉감, 제품의 이미지 등을 제공한다. 따라서 현대포장디자인에서 기술적으로 다양한 가치와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

별써 다른 분야에서는 기능과 기능, 기능과 공간의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능과 기능으로는 프린터, 팩스, 스캐너 등의 기능이, 또 핸드폰과 디지털 카메라, MP3, 무선 인터넷 기능들이, 기능과 공간으로는 LCD TV, 박판형 계산기, 노트북, 가로 본능핸드폰, 옥실용TV 등이 융합 되고 있다.

산업 사회의 가방과 같은 단일성적 가치와 획일화 되고 균일화 된 사고방식으로 써는, 다양화 되고 개성화 되는 현대 포장 디자인 상황을 수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전통 보자기에 은유되어 있는 가치를 현대 포장 디자인의 요소로써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 산업시대의 패키지는 내용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공간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지만, 보자기는 내용물이 있으면 3차원 형태를 유지하다가 내용물이 없으면 2차원적 평면으로 환원되는 “공간 절약 요소”가 내재.

둘째 - 산업 사회의 패키지는 자기 시스템에 맞는 것만 수용 하지만, 보자기는 싸는 물건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다재다능한 융통성”을 부림.

셋째 - 산업 사회의 패키지는 단일성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보자기는 그 용도와 상황에 따라서 싸다, 메다, 가리다, 덮다, 들다, 이다, 차다, 깔다와 같이 “가변적 다양성”의 동사가 따라다님.

넷째 - 보자기의 재료는 쓰다 남은 잣알만한 크기의 조각 천에서부터 손바닥만 한 크기 까지 그

크기에 따라 각각의 쓰임새로 활용됨. “재활용성과 경제성”

공간 절약요소와 다재다능한 융통성, 가변적 다양성, 재활용성과 경제성 등 보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철학을 담는다면 앞으로의 현대 포장 디자인은 좀더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거듭날 것이다.

## Ⅶ. 결론

보자기는 자기 시스템에 맞는 것만을 수용하는 서양식 가방과는 달리 어떤 형태, 어떤 시스템이라도 거기에 적응하여 받아 들인다. 둥근 것, 네모난 것, 긴 것, 짧은 것, 딱딱한 것, 부드러운 것 등등 상황에 따라 보자기로 쓴 보따리 형태는 달라진다.

가방에 붙어 다니는 동사는 ‘넣다’와 ‘메다’ 뿐이지만 보자기에는 ‘싸다’ ‘메다’ ‘가리다’ ‘덮다’ ‘깔다’ ‘들다’ ‘이다’ ‘차다’와 같이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무구한 동사들이 따라 다닌다.

가방과 보자기는 용기라는 물성으로도 존재하지만 문명의 의미작용인 하나의 기호로써도 존재한다. 즉 보자기는 펴는 기능과 싸는 기능의 서로 상반되는 양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고, 내용물이 있을 때는 3D, 없을 때는 2D형태로 돌아 가버리는 보자기의 세계에는 부드러운 구조 속에 모든 것을 통합 할 수 있는 가변적 다양성과 재활용성을 갖고 있다.

산업사회의 패키지에서 불가능했던 기능과 기술적 융합이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맞이하면서 복합과 융합이 가능해짐으로서 더욱 새롭고 다양한 기능의 포장디자인이 가능한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다.

보자기의 가치를 이런 시대적 상황에 반영하여 산업 사회 속에서 왜곡 되고 소외된 인간의 삶에 새로운 질적 변화를 가져올 현대 포장디자인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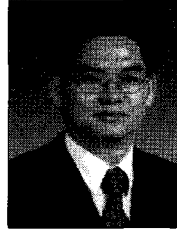
참고 문헌

- [1] 이시대의 좋은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전 전시 도록, 예술의 전당, 2004.
- [2] 손학영, *한국인의 숨씨, 다홀미디어*, 2001.
- [3] 정해은, *조선후기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 (주) 창작과 비평, 1997.
- [4] 최대림 역해, *동국세시기*, 홍신문화사, 1989.
- [5] 이길표, *전통가례*, 한국근화재보호재단, 2000.
- [6] 이길표, *조선후기 서울 반가의 혼례*,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2000.
- [7] 홍나영, *여성쓰개의 역사*, 학연문화사, 1995.
- [8] 허동화, *옛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1988.
- [9] 허동화,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규방문화*, 현암사, 1997.
- [10] 김영숙, *가방디자인의 세계*, 청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1998.
- [11] 김명숙, *색고운우리포장*, (사)한국선물포장디자인협회, 2004.
- [12] 제갈태일, *한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더불어책, 2004.
- [13] 이어령, *한국인의 손 한국인의 마음*, 디자인하우스, 1995.
- [14] 李德懋, 士小節, 婦儀, 服食, 衾枕褥虎子 以柏 冪之不煩人見.
- [15] 李德懋, 士小節, 婦儀, 服食, 凡手調飲食 勿搔首癢 爪甲 心用巾冪 逐器蓋覆.
- [16] 李德懋, 士小節, 婦儀, 事物, 婚親家 自有 兄弟之義 問訊贈遺 久以和敬 勿失厚意.
- [17] 김선영, *조각보를 중심으로 본 전통 보자기의 미 현대적 재해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8] 이경은,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과 보자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19] 진숙미, *조선조 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저자 소개

권 일 현(II-Hyun 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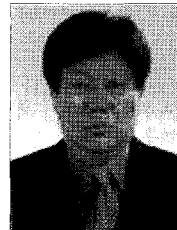
정회원



- 1996년 2월 : 한양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졸 (디자인석사)
- 현재 : 강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디자인 마케팅

남 용 현(Young-Hyun Nam)

정회원



- 1983년 2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졸 (문학 석사)
- 2006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 (디자인 박사)
-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광고 디자인